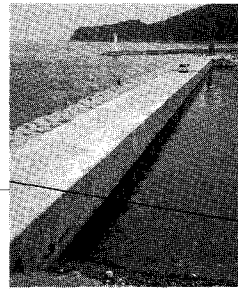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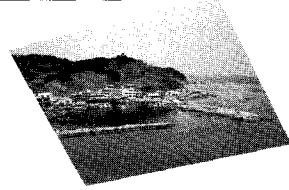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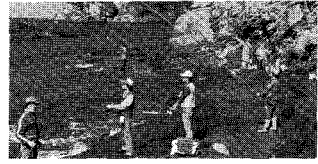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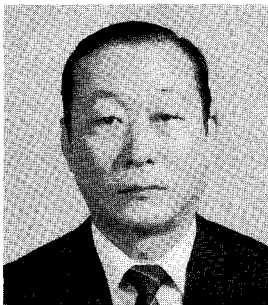


漁港을 觀光名所로 가꾸자



金 震 燮<清州大 觀光經營學科 教授>



일 반적으로 어항은 어업활동의 전진기지로서 수산물의 양륙장과 유통의 첫 단계로 이해되고 있고, 어항법(제2조)에서는 천연 또는 인공의 어업근거지가 되는 수역 육역과 어항시설을 포함하는 일정한 지역범위를 가르키고 있으나, 독특한 어항의 풍경과 풍부한 수산물 및 모든 사람이 간직하고 있는 이미지를 살려 관광휴양시설을 정비하면 관광명소로도 부각시킬 수 있다.

그런데 어항의 현실에서 볼때 어민의 생존권 보장을 비롯한 어촌·어항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의 진흥 및 수산식량 자원의 확보등 국가 경제사회의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의 정책적 지원이 뒤따르지 않고 있고 낙후지역으로 쳐져 있어서 조기의 회복이 어렵게 되어 있다.

재래적인 어항은 현재 연안어업의 부진과 어민의 후계자 난으로 쇠퇴일로에 있다. 이 같은 어항을 시대적인 변화에 맞추어 다목적용으로 개발을 시도하려할 때 어업·어항법을 비롯한 관계법률이 서로 얽혀 있어서 이를 조정하지 않고서는 복합개발을 착수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또한 어항을 거점으로 한 관광휴양지로서 개발을 시도할 때에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즉 (1) 한국의 동남해는 세계에서라도 찾아 보기드문 거치른 바다이고 (2) 태풍이 잦고 (3) 항만적지와 선박의 박지(泊地)가 부족한 점 (4) 개발에 따른 토지확보난 및 막대한 어업보상금이 뒤따르며 (5) 각종의 행정규제로 얽혀 있고 (6) 해양과 해안개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부족하여 기술도 뒤떨어져 있다. (7) 조건을 갖춘 관광휴양 적지(適地)의 부족 (8)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기간이 매우 짧다(대개 40일 전후) (9) 해양레저를 본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민간의 전문회사가 아직 생겨나고 있지 않은 점은 우리나라를 해양개발의 후진국으로 남게하고 있는 요인들이다.

워터 프론트 개발 독특한 분위기 조성

어항을 포함한 해안개발을 본격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면 현재 세계각국에서는 워터프론트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워터프론트개발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고, 계획적인 사업도 일찍부터 착수되었다. 이곳에서 워터프론트의 프론트란 말 그대로 바다하천, 호수등의 전면(海面)을 가르키고, 그 계획이란 이들 수상, 수중, 연안등을 다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개발계획을 말한다.

본래 바다의 연안은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살아가는 터전으로서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었다. 그것이 입지상의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이유에서 산업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경공업, 중공업지대로 발전해 온 것이다.

그같은 해안을 대상으로 세

이 가운데서 전세계인의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프랑스의 랑도르루시용지역의 관광휴양지 개발사례를 들 수 있는데 “물과 태양과 쾌적성”이라는 기본구상을 가지고, 21세기를 지향하는 세계의 국제적 관광휴양지로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다.

일반적으로 어항은 어업활동의 전진기지로서 수산물의 양륙장과 유통의 첫 단계로 이해되고 있고, 어항법(제2조)에서는 천연 또는 인공의 어업근거지가 되는 수역 육역과 어항시설을 포함하는 일정의 지역범위를 가르키고 있으나, 독특한 어항의 풍경과 풍부한 수산물 및 모든 사람이 간직하고 있는 이미지를 살려 관광휴양시설을 정비하면 관광명소로도 부각시킬 수 있다.

계 각국에서는 다양한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추진중에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1) 우선 해변과 해역선 보존에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고층건물보다는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룬 저·중층의 상가지대와 다양한 관광휴양시설이 들어서고 있다. (3) 각기 특색있는 관광휴양지로서의 이미지 부각을 중시하고 있다. (4) 어항의 재개발과 함께 레저스포츠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시설을 정비하고 있다. (5) 해양여가활동의 기지(基地)로서 정박시설을 완비하고 있는 것 등이다.

이 지역의 특징은 고대서양 문명의 원류인 아스테카문명을 주제(主題)로 삼아 그리스풍의 근대건축물을 주축으로 옷트하버의 오른쪽 해안은 피라밋을 상징한 테라스 하우스이고, 왼쪽 해안은 코로시움을 옆으로 자른 것과 같은 다시 말하면 테라스 하우스에 여러 원곡선을 살려서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원래 이 지역은 늪지대로서 이렇다 할 어항조차 발달하지 못한 한산한 어촌이 산재해 있던 곳이었으나, 그런 장소가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는 관광휴양지로 변모한 것이다.

선진국선 이미 어항을 다목적으로 개발

1) 지역활성화형 개발모형에서 보면 마리나, 어패류의 양식장, 해안에는 지방문화를 재생하여 독특한 관광·문화지역을 조성하여 놓아 어항의 쇠퇴를 막고, 지역재생을 기도하여 크게 성공을 거둔 예를 볼 수 있다.

2) 관광과 쇼핑과 이벤트(行事)를 위한 집단시설지구를 조성하여 크게 성공한 사례인데, 이 안에는 전천후형 이벤트지대, 수족관, 풀장, 각종 스포츠시설, 수산연구소 등은 빼놓을 수 없는 주축시설이다.

3) 해양목장형개발이 있는데, 이는 임해 공업단지를 조성하였으나, 실패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를 관광휴양지 조성형 워터프론트 개발이라 말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해양목장을 주축으로 하여 윗트하버, 해수욕장, 그리고 다양한 마린스포츠시설을 완비하여 어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바다와 해변의 잇점을 살려서 조성하는 여가활동시설과 해수를 이용한 시설로 구분된다.

(1) 바다와 해변의 시설 - 해변을 공원화하고 수족관은 필수시설이다. 그 위에 골프장, 테니스장, 배구코트, 유원지, 쇼핑센터(수산물 기념품) 각종 클럽하우스와 숙박시설로는 호

텔, 콘도미니움, 캠핑장을 정비하고 있고, 조깅코스, 사이클링도로등이 만들어 지고 있다.

(2) 바다를 이용한 시설 - 서핑, 윈드서핑, 윗트, 스쿠버다이빙, 썰트스키, 수상스키, 낚시 등의 여가스포츠 시설과 해중공원 및 해중 전망탑 등이 정비되고 있다.



어항확대, 시설정비등 개발 활성화해야

어항의 활성화를 위한 개발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지정어항의 수를 늘리고(입지조건과 거리를 참작하여) 현대식 설비로 정비한다.

그 방법으로서 동시 여객선(유람선 포함) 터미널을 정비한다. 다가올 21세기에는 여행양상이 변하여 바다의 여행이 봄을 일으킬 것이 틀림없고, 연안여객선과 관광선을 이

용한 여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객선의 건조와 수리시설, 객선터미널의 정비가 필요하고 관광어항으로서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2) 어항을 중심으로 해안선 일대에는 관광객의 체재와 여가활동을 위한 시설을 정비한

다. 호텔, 콘도미니움, 캠핑장과 같은 숙박시설과 쇼핑센터를 조성하고 유원지와 클럽하우스등도 필요하게 된다.

이같은 시설은 관광객을 장기체제로 유도하기 위한 매력(魅力)을 지닌 것이라야 하는데, 이곳에서 참고 할 점은 지역전체를 통일된 이미지로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3) 어항의 배면(背面)과 주변에는 해양박물관, 수족관을 주축으로 조망(眺望)공원, 해중전망대등을 조성하고 특색있는 레스토랑, 쇼핑센터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게 한다.

4) 어항을 중심으로 한 해안 일대는 해양레크레이션의 기지(基地)로서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다음 중 어느 형태를 선택하여 조성하여도 상관없다.

①비취형 ②마리나형 ③워터프론트형 그리고 ④종합휴양지형 등이 그것이다.

비취형은 백사장과 송림 그리고 수심이 얇고 긴 바다가 뻗어 있는 곳이라야 하고, 마리나형은 마리나를 중심으로 긴 방파제를 조성하고 육지에는 녹지대와 광장을 만들어 관광객이 가벼운 마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있는 공간으로 한다.

워터프론트형은 어항에다 도시형 관광 휴양시설을 도입하여 특색있게 조성하는 것이며, 종합휴양지형은 본래 마리나텔·레이(미국)라든가 랑도끄 루시용(프랑스)과 같이 1주일 이상 2주 또는 3주 등 장기체제를 위한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종합휴양기지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같은 유형은 한군데도 없다.

5) 어항전면에 쿠르징레저 및 낚시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괌이나 하와이 등을 비롯하여 입지조건을 갖춘 세계각지의 워터프론트에서는 쿠르징파티가 열린다. 파티라 말할 때에도 여러가지 형식과 내용이 있으나 쿠르징(巡航)파티는 바다위에 떠 있는 선상파티를 말

하는데 매우 로맨틱한 무드를 조성하기 때문에 인기가 높다. 그런 어항의 배면(背面)이나 주변에는 캠핑장, 테니스코트, 배구코트 등을 설비하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이용하게 하는 것이 좋다.

6) 어항에는 해양스포츠시설을 정비하고 해양이벤트(行事)를 발굴하여 수시로 개최한다.

현재 세계적으로 인기를 모

과 바다의 관광이용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으나 외국에서 말하는 '마린리조트'의 범주안에 들어가는 관광개발을 중심으로 제안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본격적인 구상은 아직 찾아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개발에 착수하기 전에 '마린리조트'에 대한 인식을 떠나가면서 확립된 개념을 기초로 전개하

다가올 21세기는 국민의 여가활동이 생활의 중심을 이루게 될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관광선진국의 관광휴양시설을 충분히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풍토와 국민의 여가의식에 알맞은 관광휴양시설을 정비하여 어항의 활성화방안이 동시에 모색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고 있는 것으로서는 쿠르저윌트, 모터보트의 경기가 있는데, 장차에 있어서도 이같은 스포츠형의 해양성레크레이션 경기대회(競技大會)는 더욱 대성황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이른바 해양이벤트로서는 바다의 축제와 해상퍼레이드가 인기있는 행사로 관광객을 모으고 있고 흥을 돋구기 위하여 야외무대공연, 노래 및 장기자랑, 불꽃놀이 등이 수시로 열리고 있다.

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하고 도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장래성과 사업성을 엄밀히 검토한 다음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개방화, 국제화, 정보화가 모든 분야에서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머지않아 21세기를 맞게 되었다. 다가올 21세기는 국민의 여가활동이 생활의 중심을 이루게 될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관광선진국의 관광휴양시설을 충분히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풍토와 국민의 여가의식에 알맞은 관광휴양시설을 정비하여 어항의 활성화방안이 동시에 모색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㉔

어항을 종합관광지로 인식부터 전환

이상으로 어항의 활성화방안